전남 농수산물 수출 급증

1~4월 9156만달러…작년 동기비 33% 늘어

수출비중 일본 58%, 대만-중국-미국 順

전남의 농수산물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과 청정해역 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7일 전남도가 내놓은 '농수산식품 수출동향'에 따르면 1~4월까지 전남의 농수산식품 누적 수출액(9156만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33.5% 급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전국 9개도 중에서 전남이 전북(39.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산식품은 39.7%, 수산식품은 28.8%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수출실적이 좋은 편이지만, 전남의 경우 중소수출업체(약 280곳)를 비롯, 신선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일본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10.4%), 중국(9.6%), 미국(6.3%), 베트남(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산 농수산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한류 열풍까지 이어져 한국 문화와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김(231.8%), 파프리카(84.1%), 천일염(45.6%), 전복(31.5%) 등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 버섯류(94.5%)는 중국, 홍콩 등에서, 배(75.0%)는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동북부 지진피해로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전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렬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농수산물수출담당은 "전남이 친환경, 청정해역 등의 이미지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해외박람회 참가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여는 등 도내 수출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업체 제품 잘 나갑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우수 기업 발굴 및 육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발굴한 (주)루미는 지난 2일부터 지하 1층 생활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해 6일만에 생활용품·식품매장 매출의 17%를 차지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국내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자 감시

국세청 내달부터…역외탈세 차단

다음달부터 론스타처럼 외국에서 판매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의 실질 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내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외국계 펀드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특례를 받는다.

새 제도는 특히 외국계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내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민 전세자금 보증 대상 확대

최저 年 4.6% 우대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상의회장 10명중 9명 "경제상황 비관적"

전국 71명 설문조사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중 9명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라는 응답이 90.1%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9.9%에 머물렀고, '좋다'라는 대답은 없었다.

하반기 경제전망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32.4%)이란 답변이 '나아질 것'(8.4%)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비슷할 것'이라는 대답은 59.2%였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재발'(53.7%)이 가장 많았고, '내수부진 지속'(17.9%),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13.4%), '정치리스크 확대'(7.5%) 등의 순이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우리나라 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62.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의 환경·노사 관련 규제'(33.8%), '물가통제 등 지나친 정부 개입'(4.2%)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향후 바람직한 복지정책 모델로 상의 회장 대부분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정책'(94.4%)을 들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 유지 또는 확대 기조'(95.8%)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조세정책을 증세기조로 전환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확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97.1%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차별적 처우는 금지하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7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실질 국민총소득 상승세 둔화

1분기 0.2% 증가…저축률도 낮아져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상승 탓에 2012년 1분기 들어 실질 국민총소득(GNI)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전됐던 총저축률도 올해 들어 다시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7일 내놓은 '2012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교역조건 악화로 전분기보다 낮은 0.2%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2011년 1분기 0.0%, 2분기 0.7%, 3분기 0.6%, 4분기 1.0%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실질 GNI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국제유가 상승, 수출품 가격경쟁력 저하 등 교역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분기 대비 1분기 명목 GNI도 2011년 4분기(2.4%)보다 크게 낮은 0.6% 증가했다.

1분기 총저축률은 전분기보다 1.2%포인트 낮은 31.3%에 그쳤다. 최종소비지출(2.2%)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0.4%)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등에 힘입어 2011년 4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 2.0% 성장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이 늘어나 전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운송장비 등이 증가해 10.3%나 늘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 '보이스톡' 허용

접속차단 전면 해제

LG유플러스가 7일 카카오의 무료 음성통화(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한 이용차단을 전면 해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요금제에 관계없이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홍보실장은 "그동안 보이스톡에 대한 접속차단은 통화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음성통화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고 감성전달 등 품질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이스톡에 접속차단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47.95 (+46.10)
▲	코스닥지수	466.18 (+9.50)
▲	금리 (국고채 3년)	3.30% (+0.02)
▼	원·달러 환율	1,171.50원 (-8.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변액보험 가입전 예상 수익률 공개 의무화

이르면 9월부터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사업비,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생명보험협회 공시 기준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판매 사업자는 판매전에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및 주요내용을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험 가입 뒤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위험보험료 투입 정도, 적립률 수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판매 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 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 개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파격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